

AXAB 중첩어의 유형학적 분포 연구*

오 문 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문학과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부 언어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차디차다’, ‘기나길다’와 같은 불완전 중첩어의 분포 양상을 분석한다. 중첩은 형태론적으로 낱말을 새롭게 생성해내는 방법의 하나인데, ‘명명백백’과 같은 완전중첩은 대부분의 언어에 보이지만, ‘차디차다’와 같은 불완전중첩은 일부 언어에만 보인다. ‘차디차다’와 같은 AXAB는 기본형식(어기, base) AB(차다)의 A(중첩소, reduplicant)를 어기의 왼쪽으로 중첩하고 어기와 중첩소 사이에 다른 성분(X)를 삽입한 중첩어이다. 어족별로 일부 언어를 분석한 결과, AXAB 중첩어는 알타이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주로 분포하고, 중국티베트어족의 중국어와 오스트로아시아어족의 베트남어에도 일부 발견된다. 각 언어의 2음절 어휘에 대한 AXAB 중첩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C_1V_1(C_1) C_2V_2(C_2) \rightarrow [C_1V_1(C_1) + X] + [C_1V_1(C_1) C_2V_2(C_2)]$$

알타이어족 한국어: X = { C₂i, na }

몽골문어/할하몽골어: X = { b/v }

터키어: X = { p, s, m, r }

몽골어파(다구르어 등): X = { b }

터키어파(위구르어 등): X = { p }

중국티베트어족 표준중국어: X = { li }

오스트로아시아어족 베트남어: X = { C₂a, à, ø }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인도네시아어: X = { C₂aC₂ }

대만원주민어 시라야어: X = { C₂V₂ C₂ C₂a }

대만원주민어 사오어: X = { C₂V₂ }

Bikol어: X = { ro }

Wolcaian어: X = { C₁ }

Yapese어/Kwaio어: X = { V₁ }

■ 주제어 ■ ‘차디차다’, ‘기나길다’, 불완전 중첩어, AXAB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moonoh@knou.ac.kr

1 서론

중첩은 형태론적으로 낱말을 새롭게 생성해내는 방법의 하나로 대부분의 언어에 보인다. 이러한 중첩에는 ‘튼튼하다’, ‘명명백백하다’ 등과 같은 완전중첩(total reduplication)과 ‘차디차다’, ‘기나길다’, ‘새콤달콤’, ‘알뜰살뜰’과 같은 불완전중첩(partial reduplication)이 있다. 완전중첩은 모든 언어에서 관찰되지만, 단어의 일부만을 반복하는 불완전중첩은 언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불완전중첩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글에서 고찰할 불완전중첩은 다음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다.

- (1) a. 한국어: 차디차다, 검디검다, 기나길다, 머나멀다
- b. 중국어: 糊裏糊塗(húlihútú), 嬌裏嬌氣(jiāolijāoqi)
- c. 터키어: kapkara, besbelli, bembejaz, tertemiz

(1)a의 한국어 ‘차디차다’는 ‘차다’가 기본형식이고, ‘차’가 중첩되는 부분인데, 기본형식과 중첩되는 부분을 ‘디’가 연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 형식의 반복을 ‘중첩’(reduplication), 중첩을 통해 형성된 단어를 ‘중첩어’라고 하고, 중첩의 기본형식을 ‘어기’(base), 중첩되는 부분을 ‘중첩소’(reduplicant)라 칭하기로 한다. (2)b의 현대중국어의 ‘糊裏糊塗’(húlihútú, 흐리멍덩하다)는 어기 ‘糊塗’(어리석다) 앞에 첫 음절인 중첩소 ‘糊’가 오고 어기와 중첩소를 ‘裏’가 연결하고 있으며, ‘嬌裏嬌氣’(jiāolijāoqi, 약해 빠지다)는 어기 ‘嬌氣’(여리다) 앞에 중첩소 ‘嬌’가 오고 어기와 중첩소를 ‘裏’가 연결하고 있다. 터키어를 보자. ‘kapkara(매우 어두

운), besbelli(매우 분명한), bembejaz(매우 하얀), tertemiz(매우 깨끗한)의 어기는 각각 ‘kara(어두운), belli(분명한), bejaz(하얀), temiz(깨끗한)’이며, 중첩소인 첫 번째 음절의 자음과 모음(CV)인 ‘ka, be, be, te’가 어기의 왼쪽에 중첩되고 어기와 중첩소 사이에 자음인 ‘p, s, m, r’가 왔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차디차다’, 표준중국어의 ‘糊裏糊塗’, 터키어의 ‘kapkara’와 같은 불완전 중첩어를 ‘AXAB 중첩어’라고 칭한다. 어기가 AB이며 중첩소가 어기의 첫 음절인 A이며, X는 각 언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X가 한국어에서는 ‘디’나 ‘나’, 현대표준중국어는 ‘裏’[li]와 같은 음절이며, 터키어에서는 자음 ‘p, s, m, r’으로 구현된다. 2음절 어휘의 AXAB 중첩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C_1V_1(C_1) C_2V_2(C_2) \rightarrow [C_1V_1(C_1) + X] + [C_1V_1(C_1) C_2V_2(C_2)]$$

한국어: X = { 디, 나 }

표준중국어: X = { li }

터키어: X = { p, s, m, r }

Harrison & Raimy(2004)는 터키어처럼 자음을 접사로 사용한 AXAB 불완전중첩이 부리야트어, 아르메니아어, 투바어 등과 같은 유라시아 언어에서 발견된다고 하였다.¹⁾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AXAB 중첩어의 분포 양상은 어떠한지, X로 어떠한 성분이 쓰이는지, 이러한 AXAB 중첩어는 어떤 유형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어족별로 대표적인 언어들을 살펴볼 것이다.

1) Rajdip Dhillon(2009: 6)에서재인용(Partial reduplication with an affixal consonant for the purpose of creating emphatic constructions is found across Eurasian languages, including Buriat, Armenian, and Tuvan in addition to Turkish.)

2 어족별 AXAB 중첩어 분포 분석

알타이어족, 중국티베트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일부 언어들을 통해 AXAB 중첩어의 분포 양상을 분석한다. 어족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상이한데, 이 논문에서는 알타이어족의 한국어, 몽골어, 터키어 등, 중국티베트어족의 표준중국어, 오스트로아시아어족의 베트남어,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인도네시아어, 대만 원주민어 등, 인도유럽어족의 영어와 독일어, 산스크리트어를 살펴본다.

2.1 알타이어족

알타이어족은 AXAB 중첩어가 존재하는 언어가 가장 많은 어족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몽골어, 터키어와 기타 언어로 나누어 고찰한다.

2.1.1 한국어

한국어의 AXAB 중첩어는 ‘A디AB’, ‘A나AB’, ‘A고AB’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2) -디- : 차디차다, 쓰디쓰다, 희디희다
- (3) -나- : 기나길다, 머나멀다, 크나크다
- (4) -고- : 길고 길다, 멀고 멀다, 그림고 그림다

송재목(2003: 38-39)은 ‘-디-’형과 ‘-나-’형은 반복구성이 형태

론적 구조를 이루지만, ‘-고-’형은 통사적인 반복구성이라는 것을 (5)와 같은 문법 현상에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5) 가. ‘-디-, -나-’형 반복구성에서 선행어와 후행어 사이에는 다른 문법적 또는 어휘적 요소가 끼여들 수 없지만, ‘-고’형의 경우에는 선행 형용사와 후행 형용사가 분리되어 그 사이에 다른 문법적 또는 어휘적 형태소가 들어갈 수 있다.

- ㄱ. *차디도 찬 물속으로 / *차디 또 찬 물 속으로
- ㄴ. *크나도 큰 은혜 / *크나 또 큰 은혜
- ㄷ.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 ㄹ. 그림고 또 그림다.

나. ‘-디-, -나-’형 반복구성에서 선행어와 후행어는 개별적으로 수식어를 가질 수 없지만, ‘-고-’형은 개별적인 수식어를 가질 수도 있다.

- ㄱ. a. 너무도 크나큰 은혜
b. *크나 너무나 큰 은혜
- ㄴ. a. 눈물나게 차디찬 강물
b. *차디 눈물나게 찬 강물
- ㄷ. a. 더욱 그림고 그림다.
b. 그림고도 더욱 그림다.

다. ‘-디-, -나-’형 형용사 반복구성이 일부 특정의 성상형용사에만 허용되는데, 형용사 반복구성이 통사론적 구성이라면 이러한 어휘적 제약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고-’형은 사전에 올라 있는 것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 언어사용에서는 많은 형용사와 동사에 적용되어 어휘적인 제약을 별로 받지 않는다.²⁾

2) 오문의(2015: 57-58)에서 재인용

한국어의 어휘로서 인정할 수 있는 AXAB는 ‘-디-’형, ‘-나-’형이다. 이때 ‘-디-’는 한국어 형용사 마지막 음절 ‘-다’의 첫 번째 자음 뒤에 모음 ‘i’가 온 형태이다. 즉, 한국어의 X는 ‘C_{ni}’이다.

변정민(2010: 478)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디-’형과 ‘-나-’형의 중첩어를 각각 35개와 4개를 제시하였는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 (6) 가깝디가깝다, 가늘디가늘다, 가볍디가볍다, 거뻏디거뻏다, 검디검다, 곱디곱다, 길디길다, 깊디깊다, 느르디느르다, 넓디넓다, 높디높다, 누르디누르다, 다디달다, 되디되다, 두껍디두껍다, 뚱디뚱다, 맵디맵다, 무겁디무겁다, 묽디묽다, 밍디밍다, 붉디붉다, 시디시다, 쓰디쓰다, 얇디얇다, 열디열다, 예쁘디예쁘다, 자디잘다, 작디작다, 좁디좁다, 질디질다, 차디차다, 크디크다, 푸르디푸르다, 흐리디흐리다, 희디희다
- (7) 기나길다, 머나멀다, 크나크다, 하나하다

‘-나-’형보다는 ‘-디-’형이 한국어의 대표적인 AXAB 중첩어임을 알 수 있다. 오문의(2015: 59-61)는 이러한 ‘-디-’형 중첩어가 130여개가 되며 유추(analogy)의 원리를 이용하여 ‘-디-’형 중첩어가 계속 생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위의 중첩어를 통해서 한국어의 AXAB에서 AB가 2음절이 아니라 3음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2 몽골어

Nicholas Poppe(1954/1992: 111)는 218항목 ‘-b로 끝나는 부사들’에서 몽골문어의 양태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18. 기본 어간의 제1음절에 -b를 첨가하여 ‘완전히’라는 뜻의 양태부사를 만든다. 기본 어간의 제1음절이 no-면 nob, qa-면 qab이 되는 식이다.

- (8) a. qab qar-a 새까만
- b. qab qarangrui 가장 어두운
- c. šib šir-a 셋노란
- d. ub ulaṙan 새빨간
- e. čab čaṙan 새하얀
- f. nob noṙuṙan 풀처럼 푸르른

예를 들면 (8)a에서 ‘검다’는 뜻의 ‘qar-a’에서 첫 음절 C_1V_1 ‘qa’를 취하고 그 뒤에 ‘b’를 첨가하면 ‘새까만’이라는 의미의 ‘qab qar-a’가 된다. (8)d의 ‘ub ulaṙan’(빨갳다)처럼 C_1 이 없다면 첫음절 V_1 ‘u’만 중첩하고 ‘b’가 첨가된다. 한국어에서 AXAB 중첩어의 X가 ‘디’ 혹은 ‘나’였다면, 몽골문어의 AXAB 중첩어의 X는 ‘b’이다. Nicholas Poppe는 ‘Ab’를 형용사 AB를 수식하는 양태부사로 분석하였다. 몽골문어에서도 AXAB에서 AB가 2음절이 아니라 3음절일 수도 있다.

현재 몽골(Mongolia, 외몽고)의 표준어인 할하몽골어에도 AXAB 중첩어가 존재하는데, X가 ‘b’가 아니라 ‘v’이다.

- (9) a. cagaan ‘희다’ → cav cagaan ‘아주 희다’
- b. čenxer ‘푸르다(blue)’ → čev čenxer ‘아주 푸르다’
- c. xar ‘검다’ → xav xar ‘아주 검다’
- d. nogoon ‘푸르다(green)’ → nov nogoon ‘아주 푸르다’
- e. ulaan ‘붉다’ → uv ulaan ‘아주 붉다’
- f. ariun ‘맑다’ → av ariun ‘아주 맑다’

송재목(1999: 355-356)은 이러한 중첩어를 선명시된 부분 어 두중첩(partial prespecified prefix reduplication)이라고 하였으며, 어간(어기)의 의미를 강화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2.1.3 터키어

터키어의 AXAB 중첩어는 다음과 같다.

어기		중첩어	
터키어	한국어 의미	터키어	한국어 의미
kara	어두운	kapkara	매우 어두운
belli	분명한	besbelli	매우 분명한
bejaz	하얀	bembejaz	매우 하얀
temiz	깨끗한	tertemiz	매우 깨끗한

일부 터키어 형용사의 강조 형식은 역사적으로 접두사 CVC 음절을 붙여서 파생되었는데, 여기서 첫 CV는 어기인 단어의 첫 CV와 동일하고 마지막 C는 {p, s, m, r} 에서 선택한다.³⁾ 이것을 도식화한 설명 방식으로 다시 설명하면 ‘접두사 CVC’는 ‘C₁V₁+X’에 해당하고, ‘마지막 C’는 ‘X’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두운’을 의미하는 형용사 ‘kara’에서 첫 음절 C₁V₁에 해당하는 ‘ka’의 뒤에 X로 자음 ‘p’를 첨가하여 ‘kara’의 앞에 ‘kap’을 써서 전체 단어 ‘kapkara’가 생성된다. 이때 ‘p, s, m, r’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Rajdip Dhillon(2009)은 X에 해당하는 접사 자음으로 ‘r’을

3) Andrew Wedel(2000: 546)에 “Emphatic variants of some Turkish adjectives are historically derived by prefixing a CVC syllable in which the initial CV are identical to the word-initial CV of the base of affixation, while the final C is taken from the set {p, s, m, r}”라고 하였다.

포함하는 모든 강조 형식은 어휘화되었으며, ‘p, s, m’의 선택 여부는 어기의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첫 자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터키어의 이러한 중첩어가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언어와 동일하지만, 생산적인 음운론적 과정의 결과가 아니고 실제로 많은 형태가 어휘화되었기 때문에 접사 자음 ‘r, p, s, m’의 선택 제약 조건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Kim Heung-soo(2014: 323)은 터키어 계열의 언어의 X의 기본값은 ‘p’라고 하였다.

2.1.4 기타 언어

한국어, 몽골어, 터키어 뿐만 아니라 많은 알타이어에도 AXAB 중첩어가 존재한다. 다음은 다른 알타이어에 보이는 이러한 유형의 중첩 방식과 그 예이다.⁴⁾

(10) 몽골어파⁵⁾

- a. 다구르어(AbAB): xula:n → xub xula:n (매우 빨간)
- b. 동부위구르어(AbAB): xara → xab[xəb] xara (매우 까만)
- c. 보난어⁶⁾(AbAB): fulaŋ → fub fulaŋ (매우 빨간)
- d. 모골어⁷⁾(AbAB): qarā → qab qarā (매우 검은)
- e. 칼미키아어(AbAB): tsayan → tsab tsayan(매우 하얀)
- f. 부리아트어(AbAB): ulān → ub ulān (매우 빨간)

(2) 터키어파

- a. 위구르어(ApAB): qara → qap qara (매우 검은)

4) 武·呼格吉勒圖(1996: 50-54)에서 인용하였다.

5) 어족의 하위 분류를 ‘어파’로 표기한다.

6) 중국 간쑤성과 칭하이성에 분포하는 소수민족인 바오안족의 언어이다. 保安語, Bonan language라고도 한다.

7) 아프카니스탄 헤라트 지방의 소수민족 모골족이 쓰던 언어인데 거의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莫戈勒語, Moghol language라고도 한다.

- b. 카자흐어(ApAB): qəzəl → qəp qəzəl (매우 빨간)
- c. 키르키즈어(ApAB): qara → qap qara (매우 까만)
- d. 우즈베크어(ApAB): qyzıl → qyp qyzıl (매우 빨간)
- e. 타타르어(ApAB): qəzəl → qəp qəzəl (매우 빨간)
- f. 서부위구르어(ApAB): gara → gap gara (칠흑같이 검은)

(3) 만주-통구스어파

- a. 시보어⁸⁾(AvAB): golmin → gov golmin (매우 기다란)
(AbAB): xalxun → xab xalxun (매우 뜨거운)
- b. 오로첸어⁹⁾(AbAB): kara → kap kara (매운 까만)
- c. 허젠어¹⁰⁾(AbAB): tondo → tob tondo(매우 곳곳한)

위에 제시된 대부분의 언어는 몽골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AXAB 중첩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X에 해당하는 ‘b’, ‘p’, ‘v’는 모두 脣音 계열의 자음이다. X가 몽골어파는 ‘b’, 터키어파는 ‘p’, 만주-통구스어파는 ‘b, p, v’이다. Kim Hyung-Soo(2014: 323)은 몽골어파의 AXAB 중첩어의 X의 기본값은 ‘b’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은 아주 이른 시기에 두 어파 간에 장기간의 언어 접촉으로 인해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¹¹⁾

8) 중국 新疆 維吾爾自治區的 이리카자흐족(伊犁哈薩克族)과 차부차얼시보족(察布查爾錫伯族)의 언어이다. 錫伯語, Hsipo language라고도 한다.

9) 중국 內蒙古自治區 동북부의 呼伦贝尔에 주로 거주하는 鄂倫春族의 언어이다. 鄂倫春語, Oroqen language라고도 한다.

10) 중국 黑龍江省의 同江과 饶河 유역에 주로 거주하는 赫哲族의 언어이다. 赫哲語, Hezhen language라고도 한다.

11) Hyung-Soo Kim(2014)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Schönig, Claus(2003: 415-416)은 다음과 같다.

Compared with lexical borrowings, morphological interaction is often more difficult to date. A typical example is offered by the Mongolic formula for emphatic adjectival nouns, which has an exact parallel in Turkic, cf. e.g. Mongolic *ka.b&kara = Common Turkic *ka.p&kara (qap qara) ‘completely black’. Although this feature may have very ancient areal roots, its presence in both Turkic and Mongolic has probably been supported by the prolonged language contacts. However this may be, morphological interaction must have started already during the earliest Turko-Mongolic contacts.(어휘 차용과 비교했을 때, 형태적론적 상호작용은 시기를 정하기가 어렵다. 전형적인 예는 몽골

2.2 중국티베트어족

중국티베트어족은 표준중국어와 다양한 방언을 포함하는 중국어파와 티베트어와 버마어를 포함하는 티베트버마어파로 나뉜다. 여기서는 고립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국어를 고찰한다.

2.2.1 중국어

표준중국어의 AXAB 중첩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糊裏糊塗(húlǐhútú), 嬌裏嬌氣(jiāolǐjiāoqi)’처럼 X가 ‘裏(li)’인 A裏AB 형태를 취한다. 물론 방언에서는 ‘裏(li)’가 아니라 다른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A的AB(老的老實: 官話, 湖北天門), A知AB(忽知忽露: 晉語, 山西忻州), A連AB(糊連糊塗: 晉語, 河南安陽), A個AB(結個結實: 贛語, 江西新餘), A古AB(梆古梆硬: 贛語, 江西吉州), A肌AB(著肌著真: 贛語, 湖北大冶)¹²⁾ 등과 같이 ‘的, 知, 連, 個, 古, 肌’ 등의 형태를 취한다.

표준중국어 A裏AB 중첩어는 金元 시기의 A'B'AB 逆行變韻 중첩형식에서 기원하였다. 金元 시기의 ‘急留骨碌’[*ki liəu ku lu]¹³⁾는 여기 ‘骨碌’의 성모가 왼쪽으로 중첩되어 逆行變韻된 어휘이다. 즉 ‘骨碌’가 여기이고, ‘急留’는 ‘骨碌’의 성모가 역방향으로 중첩된 두 개의 음절이다. 明清 시기에 ‘急留骨

어파의 강조 형용사성 명사에 보이는데, 이는 터키어파와 정확히 평행을 이룬다. 예를 들어, ‘아주 검은’이라는 뜻의 몽골어 *ka.b&kara’와 공통 터키어 *ka.p&kara(qap qara)’가 같다. 이러한 특징은 매우 오래된 지역적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터키어파와 몽골어파 모두에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장기간의 언어 접촉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떨든, 형태론적 상호작용은 가장 이른 터키어파와 몽골어파의 접촉 중에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12) 오문의최선희(2017: 284)

13) [] 안의 음은 石録(2005)이 楊耐思의 『中文音韻音系』에 근거하여 재구한 元代的 음이다

碌'(A'B'AB)가 ‘骨裏骨碌’(A裏AB)로 변했다. 즉, 두 번째 음절의 ‘溜’가 ‘裏’로 변했고, 세 번째 음절 ‘骨’를 중첩한 첫 번째 음절은 더 이상 음이 변하지 않게 되었다.¹⁴⁾ A'B'AB에서 A'는 A와 성모가 같다. 또한 X에 해당하는 B'는 B와 성모가 같으며 그것의 운모는 대부분 『中原音韻』의 尤侯韻 [*-iəu]이다. A'B'AB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 |
|---------------------------|---------------------------|
| (11) 吸溜忽刺[*xi liəu xu la] | 矢溜疏刺[*ʃi liəu ʃu la] |
| 赤溜束刺[*ʃi liəu ʃu la] | 急溜骨碌[*ki liəu ku lu] |
| 剔溜秃魯[*tʰi liəu tʰu lu] | 赤溜出律[*ʃi liəu ʃiu liu] |
| 乞溜曲律[*kʰi liəŋ kʰiu liu] | 踢良秃魯[*tʰi liəŋ tʰu lon] |
| 的溜的立[*ti liəu ti li] | 滴溜滴列[*ti liəŋ tʰi lon] |
| 乞溜乞良[*kʰi liəu kʰi liəŋ] | 七溜七林[*tsʰi liəu tsʰi lim] |
| 出溜出律[*ʃʰiu liəu ʃʰiu liu] | 沒溜沒亂[*muo liəu muo lon] |

A'B'AB의 A'의 음이 ‘矢’를 제외하면 모두 입성이다.¹⁵⁾ 오문의 최선희(2016)는 A'가 입성인 것은 몽골문어 불완전 중첩어인 AbAB의 Ab가 입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石録(2005)의 주장을 보완하면서 표준중국어의 A裏AB가 몽골어와의 언어접촉으로 새로 생겨난 어휘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2.3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에는 베트남어, 크메르어 등이 포함되는 데, 주로 인도차이나 반도 부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단어 형

14) 石録(2005: 49)

15) ‘吸, 赤, 急, 剔, 乞, 踢, 的, 滴, 乞, 七, 出, 沒’은 모두 한자음의 종성이 ‘ㄱ, ㄴ, ㅂ’으로 끝나는 입성이다.

태론적 측면에서 보면, 오스트로아시아어족에는 다양한 파생 접두사가 있고, 다수는 접요소도 있지만, 문다어파 및 일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언어에는 접미사가 거의 없다. 특히 베트남어는 음운,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으로 오스트로아시아어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음운론적 특성이 얼어지면서 남부 중국어와 유사해지면서 고립어 특징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는 베트남어만 분석한다.

2.3.1 베트남어

Nguyễn Vinh Tường(2016: 56)은 AXAB 중첩을 개입반복형 가운데 하나인 ‘h’ót ha hót hái(겉이 나서 몹시 질리다) 형’으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베트남어 용언반복어의 개입반복형은 보통 기본형이 2음절 반복형의태어이다. 반복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기본형이 오른쪽으로 반복되면서 기본형의 후행요소의 운을 -a/à/나 o/ô/로 교체하여 생성하는 것이다.¹⁶⁾ 문법기능에 있어서는 부사와 동사로 모두 기능할 수 있다. 보통 기본형의 의미를 강화하는 뜻을 나타낸다. 반복 방식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C_1V_1(C_1') C_2V_2(C_2') \rightarrow [C_1V_1(C_1') C_2+a/\grave{a}/ \text{ OR } o/\acute{o}/] + [C_1V_1(C_1') C_2V_2(C_2')]$$

예: hót hái → [hót h+a] + [hót hái] → hót ha hót hái

계약: 기본형의 후행요소가 모음 a/à/나 o/ô/에 따라 두 번째 요소가 ‘a’나 ‘o’를 가질 수 있다.

16) “기본형이 오른쪽으로 반복되면서 기본형의 후행요소의 운을 -a/à/나 o/ô/로 교체하여 생성하는 것이다”에서 ‘오른쪽’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래 도식화한 것을 보면 AXAB 중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보기는 수가 그리 많지 않는 편이다. ‘hót ha hót hái, lám la lám lét, thậm thà thậm thụt, lục đà lục đục, hi hà hi hực’¹⁷⁾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첩어에 대하여 Nguyễn Tài Căn(1975)은 ‘lám cảm¹⁸⁾ → lám cà lám cảm’를 예로 들면서 455개의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440개가 모음이 ‘a, à, ơ’로 변형되어 반복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즉, X가 ‘C₂’의 뒤에 ‘a, à, ơ’가 온 형태를 취한다.

베트남어의 AXAB 중첩은 ‘hót ha hót hái’처럼 어기가 ‘hót hái’이며, 두 번째 음절 ‘hái’의 첫 자음인 ‘h’가 역행 중첩되고 그 뒤에 모음 ‘a’가 첨가되어 ‘hót ha hót hái’가 되었다. 즉 X는 B의 첫 자음의 뒤에 ‘a, à ơ’가 온다. Nguyễn Vĩnh Tường(2016: 56)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였으나 Nguyễn Tài Căn(1975)은 440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언어처럼 화자의 AXAB 중첩어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¹⁹⁾

2.4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은 동남아시아와 마다가스카르, 태평양 지역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언어들에 포함한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화자 수가 많은 어족이다. 화자 수가 가장 많은 주요 언어로는 말레이어(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 자와어, 타갈로그어 등이 있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는 약

17) ‘hót ha hót hái’은 ‘겁에 질리다’, ‘lám la lám lét’은 ‘슬그머니 훔듯 보다. 몰래 훔듯 보다’, ‘thậm thà thậm thụt’은 ‘몰래 드러들다’는 뜻이다.

18) ‘망녕 든, 멍한’이라는 뜻이다.

19) 한국어와 중국어 AXAB의 수용성에 관해서는 오문의(2015) 참조.

1,257개의 언어가 속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언어를 포함하는 어족이다.²⁰⁾

이 어족은 중첩이 매우 많이 쓰이며 접두사, 접미사, 접요소 등의 접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지만, AXAB 중첩을 연구한 논문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중첩과 관련된 많은 논문에서 AXAB에 해당하는 단어로 보이는 예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2.4.1 인도네시아어

반복법(reduplication)²¹⁾은 오스트로네시아어족(Austronesian) 언어들의 중요한 조어법(word-formation) 기제이다. 반복법에 대한 논의 없이는 온전한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Simatupang(1983)은 반복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²²⁾고 할 정도로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어에서 중첩은 매우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그 양상도 다양하다. 이주영(2014: 278-281)은 중첩을 완전반복법, 불완전반복법, 리듬반복법²³⁾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다음은 리듬반복법의 예이다.

- (12) a. bolak-balik 왔다갔다하는
- b. asal-usul 유래, 기원
- c. cobak-cabik 갈기갈기 찢어진
- d. gunung-ganang 산악
- e. huru-hara 야단법석의

20) <https://ko.wikipedia.org/wiki/오스트로네시아어족>

21)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서는 'reduplication'을 '반복법' 혹은 '반복'으로 번역한다. 이 논문에서는 직접 인용이 아니면 '중첩'으로 표기한다.

22) 이주영(2014:274)

23) 리듬반복법은 어기가 자모음의 변화와 함께 반복되는 언어 현상을 말한다(Nomoto, 2012; Sharum & Zainon Hamzah, 2011). 인도네시아어 반복법의 한 유형인 리듬반복법은 현재 생산성(productivity)은 거의 없지만, 사용빈도는 구어에서 여전히 높다.(이주영(2014: 287))

- f. jongkak-jangkit 흔들흔들거리는
- g. mondar-mandir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 h. polang-paling 빙글빙글 돌다
- (13) a. warna-warni 각양각색
- b. teka-teki 수수께끼
- (14) a. sayur-mayur 여러 가지 채소들
- b. lauk-pauk 반찬들
- c. ramah-tamah 친절히 대하다
- d. cerai-berai 갈기갈기 (찢긴)

(12)는 두 개의 모음이 모두 바뀐 경우인데, a의 ‘bolak-balik’ (왔다갔다하는)은 자음 ‘b-l-k’를 제외한 모음이 각각 다르게 교차되어 형성된 반복어이다.²⁴⁾ (13)은 두 번째 음절과 네 번째 음절의 모음만 바뀐 경우인데, a의 ‘warna-warni’(각양각색)은 모음 ‘e-a’가 ‘a-i’로 교체되었다. (14)는 첫 번째 음절의 첫 자음이 바뀐 경우인데, a의 ‘sayur-mayur’(여러 가지 채소들)은 여기 ‘sayur’(야채)의 첫 자음 ‘s’가 ‘m’으로 교체되었다.²⁵⁾ 여기가 ‘sayur’이기 때문에 AXAB가 아니라 ABXB로 분류해야 한다. 여기가 뒤에 놓인 AXAB의 예를 (15)에 제시하였다.

- (15) a. bengkil(부은, 부푼) → bengkal-bengkil(부스럼이 많은, 혹은 많은)
- b. bengkong(구부러진, 흰) → bengkang-bengkong(구불구불한)
- c. kelip(깜빡이다) → kelap-kelip(반짝이다)
- d. cebur(침병 소리) → cebar-cebur(침병침병(반복적으로 큰 물체가 물에 부딪치거나 잠기는 소리))
- f. keluk(휨, 구부러짐) → kelak-keluk(곡선, 굴곡, 커브).²⁶⁾

24) 안영호·전태현(1994: 281)

25) 리듬반복법의 모음과 자음의 변화 양상은 이주영(2014: 287-291)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6) 이주영(2015: 141-142)

(15)a의 ‘bengkal-bengkil’(부스럼이 많은, 흙이 많은)은 여기 ‘bengkil’(부은, 부푼)의 끝음절의 ‘kil’의 모음 ‘i’만 ‘a’로 교체되었다.²⁷⁾ (15)b-f도 모두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모두 ‘a’로 교체되었다. (15)는 AXAB 중첩어로 분류할 수 있다.²⁸⁾ 이러한 어휘들의 중첩 양상의 특징은 X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음절이 네 번째 음절과 모음 하나만 다르고 여기에 어떠한 모음이 쓰이든 모두 ‘a’로 교체된다. 즉 X는 ‘C₂aC₂’이다.

2.4.2 대만 원주민어²⁹⁾

대만 원주민어 가운데 시라야족(西拉雅族, Siraya)과 사오족(邵族, Thao) 언어에 AXAB로 볼 수 있는 예가 보인다. 아래는 시라야족 언어의 예이다. K. Alexander Adelaar(2000: 37)에 세 가지 유형의 AXAB 형태가 보인다.

(16) X가 C₂V₂인 경우

- a. darang(도로, 길) → dara-darang(도로들, 길들)
- b. ravak(무덤) → rava-ravak(무덤들)
- c. puluk(땅, 대지) → pulu-puluk(지역)³⁰⁾

(17) X가 B의 첫 번째 자음 C₂인 경우

- a. apad(천 조각) → ap-apad(천 조각들)

27) 안영호·전태현(1994: 281)

28) 인도네시아어에서 여기가 중첩어의 앞에 놓이느냐 뒤에 놓이느냐 하는 것은 모음 변이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다. 이주영(2015:140)은 “인도네시아어 리듬반복법은 두 형태 ‘어근-반복어’와 ‘반복어-어근’을 도출해 낸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 도출이 모음 변이의 방향성과 관련돼 있다. 다시 말해, 모음 변이의 방향성이 ‘/i, (e)/ → /a/ → /u, o/’이면 ‘반복어-어근’ 형태가 도출되고, ‘/i, (e)/ ← /a/ ← /u, o/’이면 ‘어근-반복어’ 형태가 도출되는 것이다. 위 사실은 리듬반복어 ‘robot-rabit’ ‘갈기갈기 찢어진’과 ‘bongkar-bangkir’ ‘분해돼 흩어져 있는’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29) 대만 원주민의 언어를 분류하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틀어 ‘대만 원주민어’로 칭한다.

30) ‘puluk’은 ‘land, country’, ‘pulu-puluk’은 ‘countries, regions’으로 번역되어 있어 각각을 ‘땅, 대지’와 ‘지역’으로 번역하였다.

b. ayam(새) → ay-ayam(새들)

(18) B가 -ey로 끝나면 X가 C₂a가 되는 경우

a. patey(죽은 사람, 망자) → pata-patey(죽음)

b. ringey(일) → ringa-ringey(일들)

(16)a의 ‘dara-darang’(도로들, 길들)은 여기 ‘darang’(도로, 길)의 ‘C₁V₁+C₂V₂’인 ‘dara-’가 어기의 앞에 중첩되었고, (17)a의 ‘ap-apid’(천 조각들)은 여기 ‘apid’(천 조각)의 ‘V₁+C₂’인 ‘ap’가 어기의 앞에 중첩되었다. (18)은 단어가 ‘-ey’로 끝난 경우이다. a의 ‘pata-patey’(죽음)은 여기 ‘patey’(죽은 사람, 망자)의 ‘C₁V₁+C₂’의 뒤에 모음 ‘a’가 온 ‘pata-’가 어기의 앞에 중첩되었다. 즉, X가 (16)은 C₂V₂, (17)은 C₂, (18)은 C₂a이다.

M. Laura Chang(1998: 280)의 사오족 언어에도 AXAB 중첩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 보인다.

(19) a. cpiq(채찍질하다, 때리다) → cpi-cpiq(반복적으로 때리다)

b. fariw(사다) → fari-fariw(물건을 사러 가다, 상점을 돌아다니다)

(19)는 (16)과 동일한 중첩 방식으로 만들어진 중첩어이다. (19)a의 ‘cpi-cpiq’(반복적으로 때리다)는 여기 ‘cpiq’(채찍질하다, 때리다)의 ‘C₁(V₁C₁)+C₂V₂’인 ‘cpi-’가 어기의 앞에 중첩되었고, (19)b의 ‘fari-fariw’(반복적으로 때리다)는 여기 ‘cpiq’(채찍질하다, 때리다)의 ‘C₁+C₂V₂’인 ‘cpi-’가 어기의 앞에 중첩되었다. 이 언어에서 X는 ‘C₂V₂’다.

2.4.3 기타 언어

Setzuko Kiyomi(1993)에서 ‘modified partial reduplication’에 해당하는 중첩의 예를 보면 AXAB 중첩어가 보인다.³¹⁾

(20) kabayo(말) → karo-kabayo(흔들 목마) [Bikol어. X=ro]

(21) piraf(도둑질하다) → pip-piraf(도둑질 당하다)

[Woleaian어. X=C₁]

{ V₂ } 첫음절의 첫 번째 자음]

(22) chugur(가깝다) → chuu-chugur(가까운) [Yapese어. X=V₁]

(23) tegela(강하다) → tee-tegela(매우 강하다) [Kwaio어. X=V₁]

(20)의 Bikol어는 중부 필리핀에 분포하며 이 언어에서 X는 ‘ro’이며, (21)의 Woleaian어는 미크로네시아 언어로 이 언어에서 X는 여기 첫 음절의 자음 C₁이다. (22)의 Yapese어는 미크로네시아의 얍(Yap)섬에서 쓰는 언어이고 (23)의 Kwaio어는 말레이폴리네시아어파에 속하는 언어인데, 이 두 언어는 모두 첫음절의 모음을 장음으로 발음하는 방식으로 AXAB 중첩어를 만든다. 즉, Yapese어의 ‘chuu-chugur’와 Kwaio어의 ‘tee-tegela’의 X는 V₁인데, 첫음절 모음을 길게 발음하므로 표기는 ‘chuu’와 ‘tee’처럼 모음을 다시 써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첩도 AXAB 중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³²⁾

31) Setzuko Kiyomi(1993: 183-189)에서 인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중첩형태를 약간의 변형을 거친 부분중첩(Modified partial is defined as partial reduplication with some modifications)으로 정의한 ‘modified partial reduplication’으로 분류하였다.

32) 미국 서부와 멕시코의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인 파파고어(Papago language, 오오드함어(O’odham language)라고도 함)에도 이러한 예가 보인다.

tini(입) : tiitini(입들) (栗澤(2011: 2))

bana(코요테) : baabana(코요테들) (김형업(2002: 305))

kuna(남편) : kuukuna(남편들) (김형업(2002: 305))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는 언어에 AXAB 중첩어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중첩과 접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인도네시아어, 대만 원주민어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AXAB로 간주할 수 있는 다양한 중첩어들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5 인도유럽어족

인도유럽어족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의 서유럽, 슬라브어를 쓰는 동유럽과 인도와 이란을 포함하는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어족이다. 일부 언어를 고찰한 결과, 이들 언어에서 AXAB 중첩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의 경우를 보자.

영어의 중첩어는 시(poetry)나 런던 Cockney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언어의 ‘choo-choos’부터 시작하여 성인들이 사용하는 ‘hanky-panky’, 양로원에서 들을 수 있는 ‘sing-song’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계층에 분포되어 있다. 영어의 중첩어를 형성과정으로 분류하면 운율맞춤(thyming), 동음반복(exact), 모음전환(ablaut)로 구분할 수 있다. 운율맞춤은 런던 Cockney의 속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운율맞춤은 ‘okey-dokey’처럼 자음이 추가되거나 모음의 운율은 동일함을 유지하면서 형성하는 방법이고, 동음중첩은 주로 유아 언어와 언어습득을 도와주기 위한 성인 언어에서 발견되는데 ‘wee-wee’처럼 동일한 음소를 반복하여 형성하는 방법이며, 모음전환은 ‘see-saw’처럼 to-fro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동일 음절 내의 모음을 바꾸어 형성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단어의 모음은 주로 [i], 두 번째 단어의 모음

은 주로 [a]와 [o]가 온다.³³⁾ 이 가운데 형태적으로 운율맞춤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가 가장 AXAB 중첩어와 유사하다. (24)는 이러한 운율맞춤으로 만들어진 운율중첩(rhyming reduplication) 어휘이다.

- (24) a. boogie-woogie 템포가 빠른 재즈
- b. hoity-toity 거들먹거리는, 거만한
- c. hokey-pokey 요술, 속임수 ;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아이스크림.
- d. hurdy-gurdy (손잡이를 돌려 가며 연주하는) 휴대용 풍금
- e. rattle-taggle 잡동사니의, 잡다한, 마구 뒤섞인
- f. razzle-dazzle 소동, 야단법석
- g. willy-nilly 싫든 좋든, 좋아하든 말든

이러한 운율중첩 표현은 대부분 어기가 없으며, 첫 음절와 세 번째 음절의 자음이 다른 양상을 띄고 있어 AXAB와는 다른 중첩 형식이다.

다른 언어의 예를 보자. Gerrit Kentner(2017)에 의하면 독일어도 영어처럼 운율맞춤, 동음반복, 모음전환은 발견되지만 AXAB 중첩어는 발견되지 않는다. 신수송(2006)의 독일어 중첩을 설명한 부분에도 AXAB 중첩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한 Iwona Piechnik(2015: 36-45)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의 완전중첩과 불완전중첩을 나누어서 중첩어를 나열하였는데, 여기에도 AXAB 중첩어는 발견되지 않는다.

33) <http://www.phrases.org.uk/meanings/reduplication.html>(오명기(2012: 192-193)에서 재인용)

Donca Steriade(1988: 73-76)도 산스크리트어의 중첩의 종류를 완전중첩과 부분중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만, 부분중첩에 AXAB 중첩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인도유럽어족의 더 많은 언어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인도유럽어족에 AXAB 중첩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앞에서 AXAB 중첩어의 분포 양상과 이러한 중첩어의 X로 어떠한 형태론적 요소가 쓰이는지를 살펴보았다. AXAB 중첩어는 어기가 AB이며 첫 번째 음절 A가 역행 중첩되고 A와 AB 사이에 불특정한 변항(X)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중첩어를 말한다. 어기인 AB는 대부분 2음절이지만 3음절 이상인 경우도 있다. 어기가 2음절인 중첩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C_1V_1(C_1) C_2V_2(C_2) \rightarrow [C_1V_1(C_1) + X] + [C_1V_1(C_1) C_2V_2(C_2)]$$

알타이어족 한국어: X = { C₂i, na }

몽골문어/할하몽골어: X = { b/v }

터키어: X = { p, s, m, r }

몽골어파(다구르어 등): X = { b }

터키어파(위구르어 등): X = { p }

중국티베트어족 표준중국어: X = { li }

오스트로아시아어족 베트남어: X = { C₂a, à, σ }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인도네시아어: X = { C₂aC₂ }

대만원주민어 시라야어:

X = { C₂V₂, C₂, C₂a }

대만원주민어 사오어:

$$X = \{ C_2V_2 \}$$

Bikol어: $X = \{ ro \}$

Woleaian어: $X = \{ C_1 \}$

Yapese어/Kwaio어: $X = \{ V_1 \}$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는 여기서 3음절 이상인 경우도 2음절인 경우와 동일하지만, 한국어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8)b의 몽골문어 ‘qab qarangrui’(가장 어두운)은 여기 ‘qarangrui’가 3음절이지만 AXAB 중첩은 2음절과 동일하다. 즉, 첫 음절의 자음과 모음 C_1V_1 의 뒤에 몽골문어의 X에 해당하는 ‘b’가 와서 ‘qab qarangrui’가 된다. 그러나 한국어 ‘가깝디가깝다’는 이와는 달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절 ‘가깝-’($[C_1V_1 C_2V_2C_2]$)을 여기 앞에 중첩하고 한국어의 X에 해당하는 ‘디’를 써서 ‘가깝디가깝다’가 만들어진다. 즉,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두 번째 음절 뒤에 X가 온다. 한국어 3음절 어기의 중첩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C_1V_1(C_1) C_2V_2(C_2) C_3V_3(C_3) \rightarrow [C_1V_1(C_1) C_2V_2(C_2) + X] + [C_1V_1(C_1) C_2V_2(C_2) C_3V_3(C_3)]$$

한국어: $X = \{ C_3i, na \}$

AXAB 중첩어는 알타이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주로 분포하고, 중국티베트어족의 중국어와 오스트로아시아어족의 베트남어에도 일부 발견된다.

X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타이어족은 한국어를 제외하면 X가 모두 자음이며, 대부분 唇音과 연관이 있는 ‘b, p, v’이다. 다구르어 등의 몽골어파는 ‘b’, 위구르어 등의 터

키어파는 ‘p’이다. 터키어에서만 X가 ‘p, s, m, r’이다. 둘째,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은 Bikol어를 제외하면 X가 모두 ‘C₂V₂C₂’와 관련이 있다. 인도네시아어와 대만 시라야어에서 V₂가 ‘a’를 포함한 음절이 오는 것을 제외하면 이 논문에서 고찰한 다른 언어는 모두 ‘C₂V₂C₂’의 일부를 X로 취한다. 셋째, 오스트로아시아어족의 베트남어는 X가 ‘C₂+a, à, ɔ’이다. 넷째, 표준중국어 ‘li’와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Bikol어의 ‘ro’처럼 X가 여기와 관련이 없는 음절이 쓰이기도 한다. 다섯째, 한국어의 ‘디’처럼 마지막 음절의 자음 뒤에 ‘i’가 와서 X가 ‘C_ni’인 경우도 있다. AXAB 중첩어의 어기는 대부분 2음절이지만 한국어와 터키어처럼 3음절의 예도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가깝디가깝다, 가늘디가늘다’, 터키어의 ‘daracik: dapdaracik(좁디좁은)’, ‘kocaman: koskocaman(크나큰)’, ‘sicacik: simsicacik(따끈따끈한)’ 등이다.

이 글은 AXAB 불완전중첩의 분포에 관한 초보적 연구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먼저 어떤 특성을 갖는 언어에 AXAB 중첩어에 존재하는지, 즉 알타이어족과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AXAB 중첩어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언어의 유형적인 특징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고찰에 의하면, X가 음절의 뒤에 놓여 접사적인 기능을 하므로 접사가 발달한 언어일수록 AXAB 중첩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알타이어족은 실질형태소인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단어 또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은 접사가 매우 발달한 어족인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접사가 발달한 언어일수록 AXAB 중첩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의 예외가 바로 표준중국어와 베트남어

이다. 이 두 언어는 고립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접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인데 AXAB 중첩어가 존재한다. 표준중국어의 AliAB는 앞에서 몽골어와의 언어 접촉으로 인해 생긴 어휘임을 설명했다. 베트남어의 AXAB 중첩어의 기원을 설명한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참파왕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지금의 베트남 중남부는 이전에 인도네시아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말레이계 왕조인 참파왕조(192-1832)가 지배했었다. 참파왕조가 사용했던 참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말레이어군에 속한다. 즉 표준중국어와 몽골어처럼 인도네시아어와 유사한 언어를 구사한 참족과의 언어접촉으로 인해 베트남어의 AXAB 중첩어가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베트남어의 X가 ‘C₂+a, à, o’인 것과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X가 ‘C₂aC₂(인도네시아어), ‘C₂V₂, C₂a’(시라야어), ‘C₂V₂’(사오어)와 유사하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한국어의 ‘di’, 표준중국어의 ‘li’에서 알 수 있듯이 X의 모음으로 ‘i’가 쓰이는 예가 더 있는지, 있다면 왜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에서는 ‘a’, 한국어와 표준중국어에서는 ‘i’가 선택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X에 모음 ‘i’가 포함된 언어를 더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프리카 니제르콩고어족인 요루바(Yoruba)어에도 유사한 예가 보인다.

(25) 요루바어

- a. gbónágbí-gbóná 따뜻하다
- b. dáradí-dára 좋다
- c. její-je 먹다, 먹은 행위³⁴⁾

이 예들은 AXAB가 아니다. 여기가 2음절이면 ABXAB, 여기가 1음절이면 AXA가 된다. 이때 X는 A의 첫 번째 자음 C₁의 뒤에 i가 온 'Ci'이다. 김형엽(2002: 30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언어에서 모음이 음절의 재배치 과정에서 'CV'와 같은 모습으로 정상화되도록 삽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항상 'i' 모음이 자동적으로 삽입된다. 즉, 'i' 모음의 분포와 음운 및 형태적 변화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언어에서 이 모음은 해당 언어 전체적으로도 어떤 모습들보다도 훨씬 적극적으로 단어 형태 변화에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i' 모음을 단어 변형과 음절 정상화에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그러나 그는 'i' 모음이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도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AXAB 중첩어가 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언어 접촉으로 인한 어휘 확산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생적 계통이 다른 언어들도 그것들이 서로 오랫동안 접촉하면 구조적 특질이나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구조적 특질들이 발생적 경계를 넘어 확산되어, 서로 관련이 없거나 적어도 다른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그 특질을 공유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³⁵⁾ 그렇다면 같은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그 영향을 쉽게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지역 AXAB 중첩어의 영향 관계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것도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34) 김형엽(2002: 308-309)

35) 김기혁(2009: 42)

□ 논문 투 고 일: 2025.01.10

□ 심 사 완 료 일: 2025.01.31

□ 계 재 확 정 일: 2025.01.31

참고문헌

- 김기혁(2009/2001), 『언어유형론-형태론과 통사론』, 서울, 보고서
(Song Jaejung,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Pearson Education Limited).
- 김형엽 (2002). “영어 중첩복합어 분석”. 『인문언어』 통권 제3집
303~314.
- 변정민 (2010). “형용사 반복 구성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85호, 475~494.
- 서정민·조정행 (2009). “Sanskrit어의 중첩현상과 중첩사의 무표형
출현”. 『언어학』 17권1호, 91~114.
- 송재목 (1999). “할하 몽골어의 중첩현상에 대하여”, 『언어의 역사:
성백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태학사, 343~380.
- 송재목 (2003). “형용사 반복구성-희디 희다, 크나 크다, 넓고 넓다—”,
『국어학』 제42집, 27~53.
- 송재목 (2011). “한국어와 몽골어의 형용사 어두중첩”. 『언어학』
제59호, 113~128.
- 신수송 (2006). 『독일어 형태론』. 역락
- 안영호·전태현 (1994). 『인도네시아어학개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오명기 (2012). “영어중첩어의 의미론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63권, 191~206.
- 오문의 (2015). “한중 AXAB식 중첩어 비교 연구”. 『중국어학』 제53집,
55~86.
- 오문의·최선희 (2016). “언어 접촉과 A裏AB 중첩식의 기원”. 『중국
언어연구』 63집, 107~131.
- 오문의·최선희 (2017). “중국 방언에 나타난 AXAB 중첩어의 분포적
특성 연구”. 『중국문학』 93집, 283~305.

- 이주영 (2014). “고등 교육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반복법 연구”. 『Journal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1권 2호, 273~294.
- 이주영 (2015). “인도네시아어 리듬반복법 모음 변이 연구”. 『언어』 40권 1호, 135~150.
- 전중호·이혜민 (2006). “한국어 부분중첩에서의 가변적 접사”, 『음성 음운형태론연구』 12권 1호, 149~159.
- 栗澤 (2011). 『漢英重疊對比研究』, 上海外國語大學 碩士論文.
- 武·呼格吉勒圖 (1996). “阿爾泰語系諸語言表示形容詞加強語義的一個共同方式”, 『民族語文』 1996年 第2期, 50~56.
- 石録 (2005). “論‘A裏AB’重疊形式的歷史來源”. 『中國語文』 2005年 第1期, 49~59.
- 李壬癸 (2013). 『珍惜台灣南島語言』. 前衛出版社.
- Hoang Van Hanh (1995). 『Từ điển từ láy Tiếng Việt(베트남어 반복어 사전)』. Hà Nội, Xuất bản Giáo dục.
- Nguyen Vinh Tuong (2016).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반복어 대조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 Nguyễn Tài Cẩn (1975), 『Ngữ pháp tiếng Việt: tiếng, từ ghép, đoản ngữ』.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và Trung học Chuyên nghiệp, (베트남어 문법: 언어, 복합어, 짧은 단어. 대학 및 전문 고등학교 출판사).
- Simatupang, M. D. S. (1983). 『Reduplikasi morfemis bahasa Indonesia』. Penerbit Djambatan.
- Abu-Mansour, Mahasen Hasan (2015). “A Study of Internal Reduplication in Makkan Arabic”.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90, 29~59.
- Andrew Wedel (2000). “Turkish Emphatic Reduplication”. *Proceedings of the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19, 546~559.
- Donca Steriade (1988). “Reduplication and Syllable Transfer in

- Sanskrit and Elsewhere”. *Phonology*(Cambridge University Press) 5(1), 73~155.
- Gerrit Kentner (2017). “On the emergence of reduplication in German morphophonology”.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36(2), 233~277.
- Harrison, K. D. & Raimy, E. (2004). “Reduplication in Tuvan: exponence, readjustment and phonology”. In A. Csirmaz, Y. Lee, M. A. Walter (Eds.), *Proceedings of WAFL 1: Workshop in Altaic Formal Linguistics*, Cambridge, MA.
- Iwona Piechnik (2015). “Reduplicative Syllables in Romance Languages”. *Romanica Cracoviensia* 15, 30~55
- Kim Hyung-Soo (2014). “Intensifying Adverbial Particle or Emphatic Prefix? A Study of Intensive Adjectives in Mongolic Languages”. 『언어학』 70, 305~328
- K. Alexander Adelaar (2000). “Siraya Reduplication”, *Oceanic Linguistics*, 39(1), 33~52.
- M. Laura Chang (1998), “Thao Reduplication”, *Oceanic Linguistics* 37(2), 277~297.
- Nicholas Poppe (1954/1992).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Otto Harrassowitz, Wiesbaden(유원수. 『몽골문어문법』. 민음사)
- Rajdip Dhillon (2009). “Turkish Emphatic Reduplication: Balancing Productive and Lexicalized Forms”. *Grazer Linguistische Studien*, 71(Frühjahr), S. 3~20.
- Schönig, Claus (2003). “Turko-Mongolic Relations”. *The Mongolic Languages*(London & New York: Routledge, edited by Juha Janhunen) 403~420.
- Setzuko Kiyomi (1993). 『A typological study of reduplication as a morpho-semantic process: Evidence from five language families』.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Typological Distribution of AXAB Reduplicate Words

Oh, Mooneui

Dep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KNOU

This paper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AXAB reduplicate words, such as ‘chadi-chada(차디차다)’, ‘gina-gilda(기나길다)’ in Korean, in some languages. reduplication is a method of creating new words morphologically. Total reduplication, such as ‘myeongmyeong-baegbaeg(명명백백)’, appears in most languages, but partial reduplication, such as ‘chadi-chada’, appears only in some languages. AXAB, such as ‘chadi-chada’, is a reduplicate word in which A(cha, the reduplicant) of the basic form(base) AB(chada) is reduplicated before the base and another component X is inserted between the base and the reduplicate ele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some languages by language family, AXAB is mainly distributed in the Altaic and Austronesian languages, and is also found in some cases in Chinese in the Sino-Tibetan language family and Vietnamese in the Austroasiatic language family. The AXAB reduplicate pattern for two-syllable words in each language is diagrammed as follows.

$$C_1V_1(C_1) C_2V_2(C_2) \rightarrow [C_1V_1(C_1) + X] + [C_1V_1(C_1) C_2V_2(C_2)]$$

Altaic

Korean: X = { C_ni, na }

written Mongolian/Khalkha: $X = \{ b/v \}$

Turkish: $X = \{ p, s, m, r \}$

Mongolian language family(Dagur, etc.): $X = \{ b \}$

Turkish language family(Uyghur, etc.): $X = \{ p \}$

Sino-Tibetan Mandarin: $X = \{ li \}$

Austroasiatic Vietnamese: $X = \{ C_2+a, à, \sigma \}$

Austronesian Indonesian: $X = \{ C_2aC_2 \}$

Taiwanese Siraya: $X = \{ C_2V_2, C_2, C_2a \}$

Taiwanese Thao: $X = \{ C_2V_2 \}$

Bikol: $X = \{ ro \}$

Woleaian: $X = \{ C_1 \}$

Yapese/Kwaio: $X = \{ V_1 \}$

| **Key Words** | ‘chadi-chada(차디차다)’, ‘gina-gilda(기나길다)’,
partial reduplication, AXAB